

품명	텡스텐 가루	
HS code	8101.10	
관세율(%)	MFN	FTA
	7	0



▶ 해당 품목의 對美 수출증감률은 비록 등락이 있으나 '24년 수출금액은 최근 5년간의 수출액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24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150.0%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함

한국의 연도별 對美 수출동향(HS 8101.10)

(단위 : 천 불, %)

연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2019	6,149	-31.5
2020	7,990	30.0
2021	8,199	2.6
2022	8,368	2.1
2023	3,640	-56.5
2023.12	3,640	
2024.12	9,099	150.0

▶ 텡스텐은 높은 밀도와 내열성 그리고 내마모성을 갖는 특징으로 인하여 항공우주 엔진과 철갑탄, 원자로 차폐 재료 등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EU, 일본 등에서 핵심 광물로 분류해 경제 안보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어 그 중요도가 매우 높기에 동 품목을 4분기 수출증가 품목으로 선정함

우리나라 對미
수출동향

(HS 8101.10)

- ▶ 텅스텐 가루(HS 8101.10)의 對미 수출금액은 작년에 감소한 것과 달리 '24년에는 급등하여 회복세를 보이며 최근 5년간의 수출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함

한국의 연도별 對미 수출동향(HS code 8101.10 세부품목)

(단위 : 천 불, %)

구분	HSK	품목명	수출금액		
			2022년	2023년	2024년 4분기
		총계	8,368	3,640	9,099
1	8101.10-0000	텅스텐 가루	8,368	3,640	9,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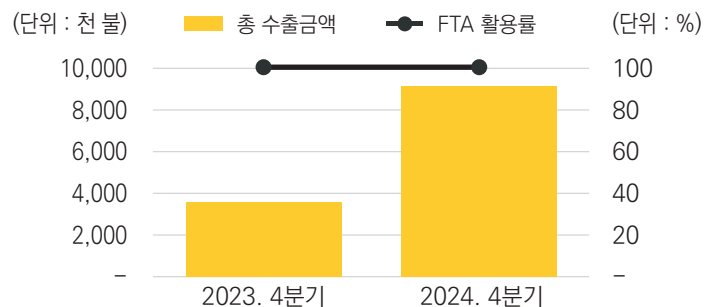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81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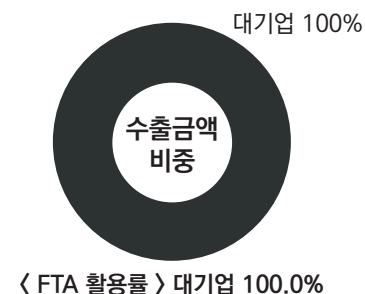
- ▶ HS 8101.10(텅스텐 가루) 對미 수출금액은 증가하였으며 FTA 활용률은 동일함
- FTA 활용률 '23년 4분기 100.0%, '24년 4분기 100.0%로 나타남
 -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은 CTS임

- ▶ '24년 4분기 기준, HS 8101.1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100.0% 임
- FTA 활용률은 대기업 100.0% 임

[HS 8101.10 對미 수출금액 및 FTA 활용률(2023~2024)]



[HS 8101.1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2024년 4분기)]



미국 수입 동향

- ▶ '24년 기준 미국의 HS 8101.10의 주요 수입국은 캐나다, 이스라엘, 중국, 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수입액 기준 4위에 위치함
- 10대 수입국 동향을 살펴보면 캐나다(26.4%), 이스라엘(24.3%), 중국(22.6%), 한국(17.0%)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 밖에 오스트리아(3.7%), 일본(2.2%), 베트남(1.7%) 프랑스(0.9%), 독일(0.8%)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특이사항

- ▶ 텅스텐은 높은 녹는점과 밀도로 인하여 반도체,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현대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수적인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나 생산국은 한정적이라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물질임
- ▶ 방위산업과 반도체 산업 등의 핵심지인 미국은 텅스텐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이나 텅스텐 최대 생산국인 중국과 무역갈등을 지속하고 있어 공급망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텅스텐 가루에 추가 관세 25%를 부과하고 있음

시사점

- ▶ 선정품목의 한-미 FTA 특혜관세율은 0%이며 MFN은 7%로 한-미 FTA 특혜관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
- 미국측 수입관세율 MFN 7%, FTA 특혜관세 0%로 FTA 특혜관세 활용 혜택이 7% 있는 품목임
- ▶ 미국이 세계 최대 텅스텐 생산국인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현 시점은 대체 조달처로서 한국의 입지를 공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임
- ▶ 하지만 상위 수입국 중 중국을 제외한 캐나다와 이스라엘 역시 FTA 활용이 가능하기에 대체 조달처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FTA를 적극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양질의 텅스텐 가루를 수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철저한 기업의 품질관리가 필요함
- 더불어 텅스텐을 비롯한 다른 핵심 광물 역시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대상이기에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발 맞추어 국내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